

트럼프 “中에 추가관세 10% 더 부과…멕시코·加엔 25%”

“대통령 취임 당일 부과…마약·불법 이민 해결시까지 유지”
中, 트럼프 추가관세 부과 계획에 “무역 전쟁 승자 없다”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마약 수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썸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랫동안

계속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힘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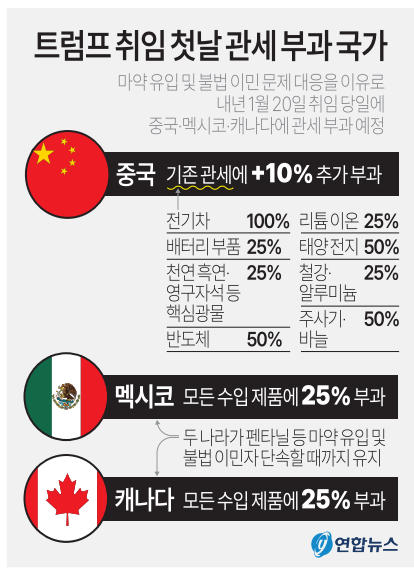
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글에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의 의미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 때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를 이유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은 했으나,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만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어 미국에 대한



USMCA에 대한 재협상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내 최근 마약 문제의 근원인 ‘펜타닐’은 멕시코의 갱단 등이 중국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미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무역·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평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대변인은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도 부정했다.

/연합뉴스

내년 멕시코서 판사 880여명 투표로 선출…“1만8천명 지원”

법관 직접 선거…부패 감소 기대
정부 편향 법률 외국 타격 전망도

내년 치러지는 멕시코 법관 직접 선거에 1만8천명이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다바르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880여명을 선출하는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1만8천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친 후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후보 신청 규모는) 놀랐고,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멕시코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는 역사적인 일이며 완전한 성공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9명으로 구성될 대법원의 경우 48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



판사 직선제 도입 반대 시위
멕시코가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로 한 가운데 지난 9월 사법부 직원들이 판사 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법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 여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5명 이상의 추천 등이 필요하다.

이번에 후보로 신청한 이들이 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모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원회의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가 추려진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은 ‘직선’ 판사들이 그간 사법부 내 문제로 지적됐던 ‘불처벌, 부패,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법원 직원들과 법학자 등 반대론자들은 판결이 여론과 여당 입김에 휘둘리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이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 변호사와 교수 등 현지 전문가들은 “각종 대(對) 정부 소송에서 법관들이 정부에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방부 “쿠르스크서 북한군 사망 확인 불가”

미국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스톱새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들(북한군)은 그 지역에 있고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신호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면서 “그들은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으나 현 시점에는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의 스톱새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정보 출처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파리 상젤리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2 이벤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변화가인 상젤리제 거리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한다.

넷플릭스 프랑스는 ‘오징어게임2’ 공개를 기념해 휴일인 다음 달 1일 상젤리제 거리에서 드라마 속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재현하는 이벤트(포스터 사진)를 한다.

무작위로 추첨된 456명의 드라마 팬이 참여하며,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3명이 각각 이끄는 팀으로 나눠 경쟁한

다.

넷플릭스는 “각 팀의 플레이어들은 레이스에서 살아남고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의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며 “팀워크를 우선하는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팡파먹기, 줄넘기, 고무줄놀이 등도 상젤리제 거리 한쪽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